



한국 중기 자동화·디지털화 필요...지멘스 적극 지원할 것

지멘스

지멘스는 올해 한국시장의 최대 화두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꼽았다.

지멘스는 전력화(Electrification), 자동화(Automation), 디지털화 분야의 가치사슬에 맞춰 글로벌 입지를 구축하는 '지멘스 비전 2020'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2020의 3가지 가치 중 디지털화가 올해 한국시장을 이끄는 키워드가 되고, 지멘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와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멘스는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아 디지털화를 추진할 준비가 잘된 대기업과는 달리,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물결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절실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디지털화 초기 단계에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멘스는 앞서가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단계적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조 커저 지멘스 회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DNA'인 변화에 대한 적응력, 비즈니스와 사회를 재창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서 있다"며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장 현장의 기계와 공급자의 IT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다. 현실의 가치사슬과 동일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 존재하며, 가상 세계와 현실의 융합은 오늘날 제조업에서 볼 수 있는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영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 1만개 구축을 목표로 야심찬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멘스도 한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멘스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 참여,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대 위아, 웨스토 (FESTO), 쿠카 (KUKA), 이프랜 (ePLAN), 리탈(RITTAL) 등 스마트 제조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민간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함께 안전·반월·시화단지예 데모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멘스 컨소시엄은 데모 스마트공장에 산업용사물인터넷

(I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등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170년간 쌓아온 지멘스의 오랜 전통과 기술력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더불어 성장한 한국기업의 60여년 노하우까지 더해져 디지털화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형 공장의 모습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지멘스는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1세대 외국인투자 기업 중 하나다.

발전설비, 전선·케이블, 화학·시멘트 공장 등 각종 인프라와 산업설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 60여년간 우리경제와 더불어 성장했다.

최근 20여년 사이 지멘스가 한국 내에 투자한 금액만 해도 2억3000만유로를 넘어서며, 특히 2013년 이후 에너지솔루션 사업 확대를 목표로 6000만유로 이상을 투자했다.

나아가 한국에 아시아-태평양·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발전 솔루션 시장을 관장하는 에너지솔루션 아시아지역본부 설립했으며, 전력 및 가스사업본부 아시아 세일즈 지역본부도 한국에 유치하는 등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곳보다 크다.

이처럼 적극적인 투자로 인한 성과는 눈부실 정도다. 2015년 기준 지멘스 한국기업의 매출은 1조7900억원으로 국내에 진출한 전기·에너지 분야 글로벌 기업 중 단연 '톱(Top)'인 데다, 2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해 고용창출에도 남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덕분에 지멘스 한국기업은 외국계 글로벌기업의 한계를 벗어나 성공적인 현지화를 이룩한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그룹 내에서 한국기업의 위상도 높다.

2013년 선도국가(Lead Country) 중 하나로 지정돼 지역본부를 거치지 않고 본사의 그룹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췄다. 사업 추진의 자율성이 높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도국가는 204개국에 퍼져있는 지멘스 글로벌의 매출 70%를 담당하는 30개국을 뜻한다.

나아가 전세계 핵심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15개국에도 포함되는 등 한국기업의 그룹 내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 지멘스는 이 같은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제조, 서비스, 에너지, 의료, 도시분야 디지털 사업협력에 중점을 두면서, 에너지솔루션 등 지역본부의 역량 강화와 그의 전 사업부문의 현지화 확대, 이를 위한 인력양성·확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일 기자 kube@

'탈탄소화, 디지털화, 분산·전기화'로 전력산업 새 변화 도래

슈나이더 일렉트릭

"앞으로 전력시장은 3D+E 트렌드가 강화될 겁니다.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디지털화(Digitization), 분산화(Decentralization) 및 전기화(Electricity)가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전력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거라고 확신 합니다."

김경록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대표(사진)는 "한국 역시 뛰어난 기술과 인프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 등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면서 "때문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비즈니스 등의 제조업 이상의 신산업 분야가 활발해지고, 국제표준과 사이버 보안 등 사물인터넷 시대의 화두에 대비한 제품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2017년을 '불확실성의 시대'로 표현했다.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이란 경제 제재 해제 및 유가 변동성, 4차 산업 혁명의 도래, 파리기후변화협약 발효 및 이행 등 국내·외 변수가 많아 시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또 스마트팩토리·스마트빌딩 등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한국 시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확신했다.

특히 전 세계 국가들과 차별화된 한국만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구글과 MS, 애플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품과 솔루션을 출시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고, 유럽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존 제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 확보에 나섰으며, 중국 또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25년까지 제조업 수준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높이고 2049년에는 세계 제조업을 지배하는 제1강국으로 자리 잡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경록 대표는 "한국 또한 4차 산업 혁명 대표 산업들이 블루오션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다 명확한 비즈니스 케이스와 변화 관리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올 한 해 전 세계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 키워드는 '탈화석연료'로,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독일은 2030년부터 전기차나 수소차만 다니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 시장이 보

다 진취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에너지 산업의 방향성이 불확실해 졌다고 전했다. 석탄발전소를 지지하고 기후변화협약에 의구심이 있던 트럼프가 오바마의 '클린 파워 플랜'을 고수할지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히 석탄 소비량을 지역별로 최대 10% 감소시켜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는 한국 시장의 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역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도 관련 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ESS와 에너지수요관리 기술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시장은 앞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등 전통적인 발전 산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김 대표는 "한국의 산업용 사물인터넷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 관련 기술을 접목시킨 사업들이 고도화될 것"이라며 "이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 기업들이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장의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올해 한국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때문에 유가, 환율, 각 국가의 정책 변화 등에 따라 국내 고객의 비즈니스 니즈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고객들이 새로운 사물인터넷 트렌드와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속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산업용 사물인터넷의 리더로서, 제조업·발전·빌딩·오일 및 가스·수처리·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략으로 효율적이면서 신뢰성있는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주 기자 jilee@



제어계측시스템 전문회사 (주)삼일피엔유입니다. IMF 경제 한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온 우여곡절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지난 20여년, 더 좋은 것은 미래에 있다는 믿음으로 여성 CEO와 함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기꺼이 동참해 준 임직원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련을 지나면서 우리 회사는 R&D를 통해 기술력을 쌓아왔으며, 어엿한 기술연구소로 갖춘 작지만 기술개발 역량을 인정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성장하여, 전력그룹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콘크리트 염화물 시험장치, 발전용수 전기전도도 측정시스템, 다채널통합 온도제어모니터링시스템, 저에너지 고효율 미세기포 활용 정화 통합시스템 등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 새해에는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원대한 포부로 환경, 안전 분야의 제어계측시스템 개발에 도전 하려고 합니다.

2017년 정유년, 새벽을 깨우는 회사로 우리나라 발전산업과 제조업 발전에 큰 울림으로 이바지 하는 회사가 되도록 총총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주)삼일피엔유 이름으로 생산, 공급되는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고객사로부터 크게 인정받도록 더운 정진하겠습니다.

꼬꼬덕꼬꼬 새 날을 여는 힘찬 붉은닭의 울음소리에 도전과 성공의 포부를 담아 새해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uKuTa KUK 꼬꼬덕

꼬꼬덕의 어원은 고대인도어로 Kukkuta-닭을 의미하며, 닭은 인도와 중국,신라에서 신성하고 상서로운 영물로 상징되어 왔다. 이듬해에 빛이 펼쳐짐을 꼬꼬~ 달걀이 생산되었음을 꼬꼬꼬꼬~ 마이클 보면 우리들에게 꼬꼬꼬꼬 알려 함께 나누는 사랑과 나눔을 상징한다.



주)삼일피엔유 Samil PNU Co., Ltd.

www.samilpnu.com
본사/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11라길54 (신도림동, 삼일빌딩) ☎ 08203
공장 인천 서구 간지로 109번길 47, 501호 (석남동 정우 아파트형 공장) ☎ 22773
T 02-2619-8738~9 F 02-6008-7567 E ok@samilpnu.com

